“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미취학지구 유치촌 2마을 임미혜A

자조적인 고백을 해보자면, 모태신앙임에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두려웠고, 때론 귀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가장 중요했던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신앙이 아이를 낳고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아이는 제 뜻대로만 살아오던 인생에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고, 어렵고 답을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제 기도를 확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아이가 지내는 곳을 위해, 아이를 통해 이뤄지는 만남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던 중, 아이의 유치원 친구를 유치촌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툭 던진 한마디에 ‘친구랑 교회에 놀러 갈래.’ 하는 마음으로 따라나선 아이의 친구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하루 신나게 놀고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언젠가 교회에 또 놀러 오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에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없이 친구따라 씩씩하게 온 그 아이를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후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예수님은 누구에요? 다음에 또 교회 오고 싶어요.’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만남의 축복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주께서 나와 내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셨음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제 아이는 함께 친구와 친구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친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 그를 통해 성숙해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두 손 꼭 잡고 이제 매주 예배에 나오는 제 아이와 아이 친구를 보며 준비되지 않은 자도 필요하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더 행복해지는 우리 가정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곧 블레싱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툭 던진 한마디’를 바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만큼의 용기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 우리 가정이 겪은 값진 경험을 모든 유치촌 친구들도 함께 해보기를,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다시한번 소망합니다.